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5 년 2 학기	파견국가	호주
파견대학	University of Sydney		
학 번	2023-12418	이 름	박수민
소 속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 년 2 월 15 일
작 성 자	박수민 Sumin

I. 교환 파견 동기

해외 경험은 짧게 여행으로만 해 보았을 뿐 오랜 기간 해외에서 살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외에서 오랜 기간 있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써 타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것은 해외에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로 다짐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국가/지역/학교 선정 이유와 나라/지역/학교 특징 소개하기

저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University of Sydney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살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왕이면 영어 능력도 키우고 싶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나라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날씨가 맑으며 위치가 대도시권에 있는 학교, 3 학기제인 학교보다는 2 학기제인 학교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USYD가 가장 적합한 선택지였습니다.

호주 NSW주에 위치한 시드니는 남반구에 있어 한국과는 계절이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패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춥지 않으며, 여름에는 햇빛이 매우 뜨겁고 기온이 30°C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도 종종 있었지만 습하지 않아 체감 온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날씨는 대체로 맑은 편이긴 하지만 제가 파견 갔을 당시에는 비오고 흐린 날도 생각보다 잦았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계절보다는 매일 날씨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며 구름 낀 흐린 날에는 춥다가도 다음날 날씨가 맑으면 급격히 더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드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를 비롯하여 본다이 비치, 맨리 비치 등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있고, 서쪽으로는 블루 마운틴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국가인 만큼 도시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있으며, 여러 나라의 음식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긴 하지만 서울만큼 붐비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활기참과 동시에 자연에서 느긋한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파견 간 USYD는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 중 하나입니다. 시드니 시티의 중심이라 불리는 CBD와 버스로 20분 남짓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도시와의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유학생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 있으며 교환학생,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입학허가서 수령 이후 비자를 받기까지 준비할 내용 등)

3월경에 서울대학교에서 nomination이 완료되면, USYD 담당자님께서 학교 등록 및 비자 신청 절차를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USYD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면 Unconditional Offer(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은 뒤에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외 유학생 건강 보험인 OSHC에 가입해야 합니다. OSHC는 학교를 통해 Bupa 업체에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개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사마다 가격이나 커버 범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362AUD를 지불하고 학교 제공 업체인 Bupa를 통해 가입하였습니다. 이때 Bupa에서 보험 적용 날짜를 개강날부터 적용해 주기 때문에 보험 날짜를 입국

일정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데, 저는 WhatsApp 을 통해 Bupa 와 연락하여 보험 커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학교에서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lment(eCoE)를 발급해주며, 이 서류를 통해 호주 내무부에서 유학생 비자(Subclass 5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으로는 1600AUD 를 지불하였으며,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 후 이태원에 있는 VFS 센터에서 바이오 등록과 사진 촬영 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는 바이오 등록 즉시 발급되었는데, 교환학생들은 쉽게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은 앞으로 계속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2. 숙소 종류와 지원방법(교내 기숙사, 교외 기숙사, 아파트, 셰어하우스 등)

제가 파견되었을 당시 USYD 는 모든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신청하라고 메일이 오며, 선착순으로 원하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메일 확인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옵션으로는 Queen Mary Building, Unilodge Kensington, Scape, Iglu 등이 있는데 이 중 Queen Mary Building 이 캠퍼스와 가깝고, 가장 저렴하고 1 인실이기 때문에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제 지원 당시에도 거의 하루만에 신청이 마감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Queen Mary Building 에 거주하였고, 비용은 일주일에 397AUD 입니다. 기숙사 신청 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추후 기숙사 포털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Kensington 의 경우 비교적 신식 건물이지만 캠퍼스와 조금 멀고 2 인실에 비용도 두배 가까이 비쌉니다. Scape 와 Iglu 는 사설 기숙사 업체로 시티 내 여러 곳곳에 위치해 있지만 마찬가지로 2 인실에 비용도 QMB 에 비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QMB 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QMB 는 대부분의 학생이 교환학생, 유학생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간식 행사나 친목 행사도 많이 하고 매주 월, 수, 금에는 무료 음식 재료들을 나눠 주니 종종 Accommodation 포털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행사 정보를 확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방에는 침대, 책상, 옷장, 냉장고, TV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화장실, 샤워실은 각 층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또 Ground 층에는 공용 주방이 있어 주로 그곳에서 요리를 하며 친구를 사귀기에 좋습니다. 지하에는 스터디룸과 세탁실, 헬스장 등이 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는 학생중에 SydPay 를 충전하여 각각 2.50AUD 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dormitory, insurance, textbook 등)

Student fee 와 tuition fee 는 서울대학교에 내는 등록금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보험 비용인 362AUD 와 기숙사비 약 8000AUD 정도를 제외하고 따로 크게 지불한 비용은 없습니다. 현장학습이 있는 과목의 경우에만 추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4. 기타 출국 전 준비했던 사항들

호주 생활을 위해서 호주 계좌를 하나 개설하는 것이 좋은데, 호주 입국 전 미리 온라인으로 Commonwealth 은행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계좌 유지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학생 계좌를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리 트래블카드 등 해외 결제 카드를 만들어와서 호주 입국 직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출국 전 미리 휴대폰 문자수신 장기정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한국 문자로 본인인증 할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입국 직후 공항에 위치한 Optus 통신사에서 학생 요금제를 개통할 수 있었는데, 이때 esim 으로 개통하면 유심을 바꾸지 않더라도 한국 문자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수강정정, 수강취소 방법

USYD 교환학생 담당자님께서 수강이 가능한 과목 리스트를 보내 주시며, 그 리스트에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는 달리 선착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과목 수강 요건만 충족하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한 과목당 6 Credits 이며 대부분의 학생은 한 학기에 4 과목씩 총 24 Credits 을 수강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Home university 의 승인을 받으면 18 Credits, 총 3 과목만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 본교의 승인을 받아 3 과목만 수강하였습니다. 수강 정정이나 취소는 개강 후에도 몇 주간 가능합니다.

USYD 의 수업은 대부분 lecture(2 시간)와 tutorial(2 시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ecture 는 주로 교수님의 일방향 강의로 이루어지고 수업이 끝나면 녹화본이 서울대의 etl 과 같은 Canvas 에

올라옵니다. 따라서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출석 여부가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Tutorial 은 주로 교수님과 TA와 함께하는 소규모 수업이고 토론이나 조별 활동, 문제풀이, 발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Lecture와 달리 tutorial은 출석이 필수적입니다.

수강 과목을 고르고 나면 시간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lecture는 고정된 시간대에 열리며 tutorial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시간대가 있어 원하는 시간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시간대의 tutorial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시간대의 선호도를 배정하면 대부분 선호도 내의 tutorial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짜다 보면 간혹 lecture끼리 시간대가 충돌하거나 lecture와 tutorial 시간대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lecture는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따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령껏 시간표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몇몇 과목의 lecture와 tutorial 시간이 겹쳐 어쩔 수없이 lecture는 녹화본을 따로 시청하였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있으면 소개하기

저는 CHNG2805(Engineering for a Sustainable Society), BIOL2032(Australian Wildlife Biology), EDUH4052(Learning in Outdoor Education) 총 3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 CHNG2805(Engineering for a Sustainable Society)

화학공학전공 1-2 학년 과목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과정을 공학적 관점에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다루면서 공학자가 가져야 할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수업입니다. Lecture에서는 SDGs 목표와 간단한 계산 과정에 대해 배우고 Tutorial에서는 주로 관련 문제를 풀이하거나 배운 SDGs 목표를 실전에 적용해보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는 튜토리얼 출석, 실험 보고서 1회, 온라인 퀴즈, 기말고사 1회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개념 등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화학공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 BIOL2032(Australian Wildlife Biology)

호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특징과 다양성에 대해 다루는 수업입니다. Wet Lab 3회와 Taronga Zoo 5회 견학이 포함되어 있어 호주의 독특한 동물 생태계에 대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더욱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이긴 하지만 범위와 과제가 상당히 많고 생물학 용어 등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평가는 온라인 퀴즈, 에세이 2회, 조별 발표 1회, 기말 고사 1회로 구성됩니다.

◇ EDUH4052(Learning in Outdoor Education)

이 과목은 호주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을 통해 Experiential Education의 이론과 실재를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수업입니다. 학기 중 Royal National Park 1일 현장학습과 블루마운틴 2박 3일 현장학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 학습 비용으로 약 200AUD를 지불했습니다. 교환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에도 매우 좋은 수업입니다. 평가는 조별 UCC 제작 및 발표, 개인 에세이 4회로 이루어지지만 과제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체력이 약해 3일간 블루마운틴을 등산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는 못해 볼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3. 학습 방법(읽을 거리가 많은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등)

아무래도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처럼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Lecture 수업에 꾸준히 출석하고 영상을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대비도 서울대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준비했더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나 과제 준비는 주로 캠퍼스 내에 위치한 Fisher Library나 기숙사 지하에 위치한 스터디룸에서 많이 하였습니다. 또 시드니 CBD에 위치한 State Library of NSW도 유명하고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이니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현지 언어 공부했던 방법, 현지 친구 사귀기 등)

학교에서 유학생 대상으로 Mates 프로그램이나 언어 교환 파티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참여하면서 현지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또 Society에서도 각종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이런 행사에 많이 참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개월간 호주에 있으면서 영어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은 기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법도 많이 틀리고 버퍼링도 많이 걸리겠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일단 말을 내뱉으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가져가면 좋은 물품으로는 수건, 멀티탭, 프리볼트 드라이어, 이불, 화장품, 상비약, 여행용 가방 등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 **Broadway** 쇼핑몰에 위치한 **K mart**에서 대부분의 물품을 싸게 구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질이 좋은 물건은 찾기 힘듭니다. 수건은 한국에서 쓰던 것을 가져가서 올 때 버리고 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장품도 한국의 올리브영과 비슷한 세포라나 **Mecca**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피부타입에 맞는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쓰던 것을 가져가서 올 때 버리고 왔습니다. 멀티탭은 멀티 어댑터가 장착된 제품을 가져가 한국에서 가져온 드라이기나 충전기 등을 플러그 변환기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어도 **K mart**에서 파는 제품은 바람이 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프리볼트 드라이어를 가져가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불이나 베개도 **K mart**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잠자리나 호흡기가 예민하다면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행용 가방은 학기 중간중간 다른 도시로 여행 갈 때 유용합니다. 호주 특성상 다른 도시로 가게 되면 거의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때 위탁 수하물을 돈 내고 따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용 큰 가방이나 기내용 캐리어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호주 햇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피크닉용 비치타월이 있다면 가져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현지 물가 수준(당시 환율, 외식비, 교통비, 관리비, 간식비, 마트에서 장보기 등)

환율은 제가 갔을 당시만 해도 1AUD에 900 원 정도였지만 체류 기간동안 1AUD에 1000 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식료품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외식비가 한국의 2-3 배이기 때문에 주로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식재료와 생활용품은 **Broadway** 쇼핑몰에 있는 **Coles**와 **Aldi**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Aldi**가 **Coles**에 비해 저렴하지만 **Coles**가 더 크고 다양한 제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Coles**를 이용했습니다. 우버이츠를 이용하면 **Coles** 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살 게 많을 때는 배달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라면이나 아시아 식재료는 **Coles**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외 김치와 같은 한국 식재료는 시드니 CBD에 있는 한인 마트인 코스모스 식품점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대중교통, 통신 등)

USYD는 서울대와 달리 구내식당이 많지 않아서 저는 주로 캠퍼스 근처나 CBD의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추천 식당으로는 No.1 Malatang(마라탕), Yo-Chi(요거트 아이스크림), Gimme one Fried Skewers(마라 꼬치), Mamak(말레이시아 음식), Anita Gelato(젤라또 아이스크림), A.P Bakery, The Grounds(커피), Bella Brutta(피자) 등이 있습니다.

호주는 병원 시스템이 한국과 달리 GP(일반의)를 1차적으로 거치고 그 뒤에 Specialist(전문의)나 대형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환학생 기간동안 조금 아팠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 많았는데, 시드니 내 한인병원을 이용했습니다. 병원비는 OSHC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데, Bupa 앱을 통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첨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진료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본인부담금만 20-40AUD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계좌이체 할 일이 많고 한국 계좌나 카드는 수수료도 적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호주 현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은행은 출국 전 Commonwealth 학생계좌를 신청해 가서 호주 입국 후 시내에 위치한 Commonwealth 지점에서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플페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주마다 교통 카드와 교통비가 다른데 시드니가 위치한 NSW 주는 Opal 카드를 이용합니다. 호주 교환학생이라면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Opal concession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 기차, 페리, 트램, 지하철에 사용 가능합니다.

통신은 입국 직후 시드니 공항에 위치한 Optus에서 개통했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생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달 200GB에 39AUD를 내고 부족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교환학생 모임 등)

USYD 는 서울대와 같이 개강 주간에 동아리소개제와 비슷한 Welcome Fest 를 개최합니다. 교내 Society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도 참여하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니면 유용한 선물 등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Society 도 여러 취미 society, 종교 society, 나라별 society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는 Chocolate Society, Desserts & Baking Society, Craft Society 등에 가입했습니다.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society 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친목을 다지기에 좋았습니다.

학기 중간에 약 일주일간 Midterm Break 와 기말고사 기간 전 약 2 주간 시험 준비 기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여행을 다니기에 좋습니다. 또 11 월 말에 종강 후에도 한달간 시드니에 머무르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교환학생 친구들과 케언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버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케언즈에서는 산호초로 유명한 Great Barrier Reef 에서 스노쿨링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쯤 가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외에 태즈메니아, 퍼스, 울룰루 등도 추천 여행지입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지, 도보 이용할 때 주변을 신경쓰기 등)

5 개월간 시드니에 머무르면서 안전 관련해서 위협을 느꼈던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CBD 근처에 노숙자가 많기는 하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밤 너무 늦게는 학교 근처에 사람이 많이 없고 어둡기 때문에 혼자 다니기보다는 같이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여러가지 파견 생활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자신만의 내용들

조금이라도 아프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몸에 염증이 생겨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가고 버텼다가 염증이 너무 커져 결국 GP 방문 후 대학 병원 응급실로 넘겨져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병원 시스템도 한국과 너무 다르게 느리고 외국인은 비싸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도 6 시간 넘게 대기 후 진찰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수술은 응급실 방문 다음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 청구도 매우 느리고 아무리 Bupa OSHC 가 있더라도 거의 2000AUD 이상 청구되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아프면 빨리 낫도록 병원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약 5 개월간 시드니에서 머물렀던 경험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한국에서는 못해 볼 새로운 경험을 해 보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더욱 넓힐 수 있었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후회되는 순간들도 없지는 않지만, 홀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기존의 콤포트 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었고,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교환학생 파견에 도움을 주신 국제협력본부 선생님과 공과대학 국제협력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